

<그 중의 한 사람>

본문: 누가복음 17:11-19 2026. 3. 8 (주일)

1.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 나님의 아들이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호수의 어촌 마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 그런데 누가복음 9:51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는 것을 생각하시 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겠다”고 결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 리를 떠나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 릴리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3. 북부 갈릴리와 남부 유대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시대에 영광과 수 치를 다 겪은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 다 왕국으로 각각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다는 점에서는 아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의 역사로 보면 사마 리아는 한 왕국의 수도로서 오랜 시간 영광을 누렸습니다.
4.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동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 러운 장소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던 앗수 르 제국에 의해 멸망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수르 제국의 왕은 자국민들을 사 마리아 지역의 여러 성읍으로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였습니다.
5. 제국의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신상들 을 가져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마리아 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6.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차별이 심해져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사마리 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요단 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는 길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 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버림 받은 땅이었습니다.
7.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경계 지역에 있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8. 나병은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되었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이 사라지고, 위치감각과 진동감각도 사라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증상이 이렇다 보니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병을 하늘이 내린 벌, 소위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 레위기 13-14장에는 나병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로 판단하면,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병에 걸려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그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격리되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10. 나병 환자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려면 그의 병이 나아야 합니다. 어떤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제사장은 마을 밖으로 나와서 그를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이 나은 것이 분명하다면 정결 예식을 거쳐 다시 마을로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1. 이런 율법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 마을 밖에 있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12.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때는 이미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3. 열 명의 나병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병이 나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5. 그런데 그들의 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기만 했던 예수를 직접 본 순간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 명의 성인들이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대뜸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16.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에 관한 율법에 따르면 나병환자에 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상합니다. 나병환자가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먼저 고쳐 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17.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면 대화가 참 이상합니다. 저 멀리서 “우리 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18.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병환자들이 진짜로 제사장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 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20.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라고 하신 것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각기 다른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각자 찾아가야 했던 제사장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21. 예수님께서서 소리치며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즉시 흩어져 각자의 제사장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3 그룹으로 나뉘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씩 뿔뿔이 흩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제사장들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22.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확인한 그 순간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기뻐할 겁니다. 나병으로 인해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고, 친한 친구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아야 했는데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3. 그런데 15절을 보니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조용히 돌아올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24. 그런데 그가 소리친 내용을 보면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25.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 발 아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6. 물론 율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순간,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임을 확인한 순간,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7. 16절 하반절에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고 계셨기 때문인지 열 명의 나병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28.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돌아와 자기 발 아래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29.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굳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나머지 아홉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는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3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31.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을 향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유대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32. 저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의 육체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도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3.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분명 그의 마음 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상처를 치유했을 것이고 망가져 있던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였을 것입니다.
34. 사실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며, 동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마을에서도 추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분명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5.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부터 차별 받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병으로 인해 이미 흉측해진 얼굴과 손, 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여전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36.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37.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아홉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달랐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아홉 사람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38.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홉 사람의 믿음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39.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그의 몸이 깨끗해진 이후에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구원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리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41.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나머지 아홉 사람의 믿음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홉 사람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깨끗해진 몸 그 자체에 시선을 빼앗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42.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해진 몸을 보며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병이 나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 하였습니다.
43. 우리의 믿음은 이기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나의 죄책감을 덜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44.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를 모를 것 같던 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앞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45.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각자 받은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헤아릴 줄 아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 “그 중의 한 사람”이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15절 말씀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각 사람이 “그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를 인도해 주었는데 왜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감사하느냐?”는 책망이 아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